

코로나19 장기화에 '위기가정' 늘었다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1년 전보다 10% 증가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조건부수급자도 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실직 등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적잖은 상황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664명으로 1년 전(1만6909명)보다 10.4%(1755명) 증가했다. 작년 5월에서 12월(1만

7198명)까지 289명 증가에 그쳤던 것이 올해 5개월 동안 1466명 증가해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가구가 더욱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조건부수급자'도 늘었다. 조건부수급자는 2018년 5월 1729명에서 2019년 5월 1846명으로 117명 증가하는데 그쳤던 것이 올해 5월 2617명으로 1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줬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 들어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

준이 다소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월소득 834만원 이상,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 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긴급지원 상담도 올해 크게 늘었다. 위기가구의 경우 상담조사를 통해 48시간 내에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는데, 제주시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964가구에 6억35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719가구에 4억7600만원이 지원됐던

데 비해 245가구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받은 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제주의 경우 재산은 종전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기준 완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이전에는 드물었던 자영업자도 일부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나빠진 경기상황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교회재산 횡령 목사 벌금형

교회 재산을 횡령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모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직원 퇴직적립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102회에 걸쳐 213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5월 29일 제직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와 2019년 1월 30일 교회 직원의 팔목과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비오는 날, 절물자연휴양림 비가 내린 18일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비옷을 입고 삼나무숲을 걸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여름철 휴가기간 감염병 예방 잊지마세요"

도, 손 씻기·정결유지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철저한 손 씻기와 정결유지,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 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여름에는 물이나 음식을 통

해 전파되는 A형간염, 살모넬라균 등 장관감염증, 병원성대장균감염증에 주의가 필요하며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기에 물릴 경우에는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일본뇌염 등의 위험도가 상승한다. 이태훈기자

아동학대 우려 가정 조사

제주시는 최근 아동 학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대 우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는 제주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7월 10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아동 등 학대 우려 가정을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아동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호망이 보다 촘촘히 구축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9일 금요일 음 4월 28일 (5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 주	0%
60%	성 산	0%
60%	고 산	0%
60%	서귀포	0%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0/26℃
모레	구름 많음	21/26℃

흐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20℃, 낮 최고 기온은 25℃의 분포를 보이겠다. 강한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5:24	달뜨기 03:46
해질미 19:47	달지기 17:53
물때	간조 03:57
	22:10
	15:38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보통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 22일부터 지급

도교육청 최근 분류작업 학교에서 학부모가 수령 유효기간 9월 30일까지 온라인·레저 등 사용 제한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 분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에 나선 72명의 교육공무원들은 무기명 선불카드에 학생 인적 사항이 기입된 라벨을 붙인 뒤 사용 방법이 담긴 안내문과 함께 비닐팩에 담았다. 이어 행정시, 학교급별, 학교별, 학급별 순으로 밀봉된 비닐팩을 다시 또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한 모습이였다.

이 작업은 지난 17일 시작됐으며, 19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7일 하루에 분류된 선불카드는 약 3만6000매였다.

분류해야 하는 선불카드 전체 규모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만5376명(유예학생·휴학생 포함)분으로, 금액으로는 226억1280만원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

만6065명(1학년 돌봄쿠폰 수령자 제외), 중학생 1만9795명, 고등학생 1만9053명, 특수학교 463명이다.

19일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면 선불카드는 각 학교로 보내진다. 이어 22일 학교에서 지급이 시작되는데, 분실 및 남용 우려로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이번 분류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복지과 사무관은 "단순한 일이 반복되는 작업이라 참가자들이 힘들어 할까봐 걱정했는데, 학생을 위한 일이라 그런 사항이 기입된 라벨을 붙인 뒤 사용 방법이 담긴 안내문과 함께 비닐팩에 담았다. 이어 행정시, 학교급별, 학교별, 학급별 순으로 밀봉된 비닐팩을 다시 또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한 모습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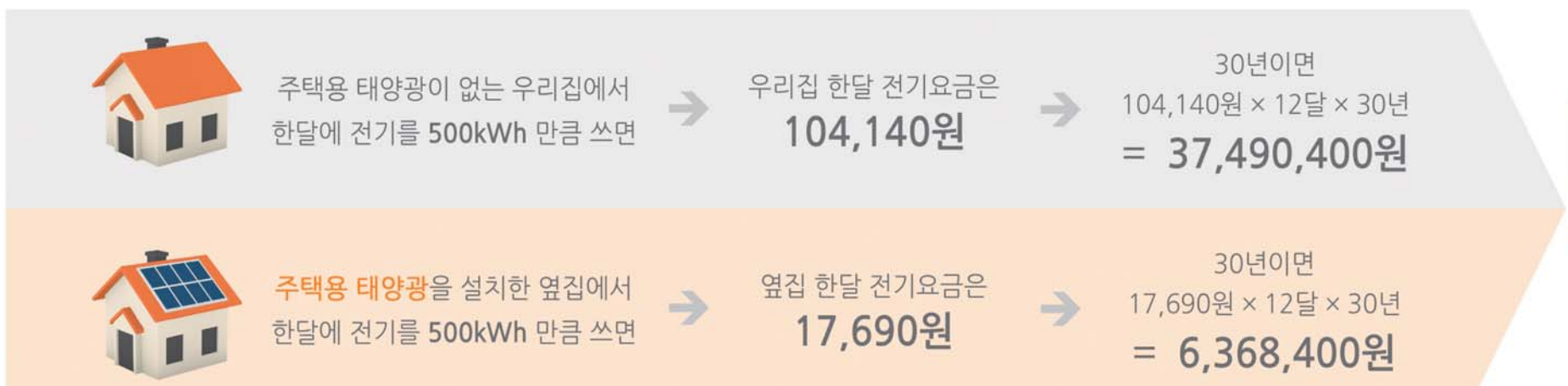
이 작업은 지난 17일 시작됐으며, 19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7일 하루에 분류된 선불카드는 약 3만6000매였다.

분류해야 하는 선불카드 전체 규모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만5376명(유예학생·휴학생 포함)분으로, 금액으로는 226억1280만원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

문미숙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